

교육과정 개정(제8차) 시점에서 본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이 홍 수*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체제하에서 교육과정은 국가의 모든 공식적인 교육단위 교육의 뼈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의 토대로서 문서화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성격, 목적,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과정의 각 영역은 교육과정 개발자의 교육과 음악에 대한 관점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value-oriented)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개정시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시각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음악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제8차 교육과정

차 례

- I. 머리말
- II. 연구의 기초
 - 1. 음악교과교육에 관한 시각
 - 2. 선행 연구 고찰
- III. ‘성격 및 목표’의 설정
 - 1. ‘성격 및 목적’ 제시 형태
 - 2. ‘목표’ 제시 형태
- IV.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
- V.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선택
- VI. 맺는말

* 한국교원대학교

I. 머리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개정해야 하고, 개정 과정에는 단기적, 현실적 필요뿐만 아니라 적어도 50년 전후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면서 큰 그림, 큰 틀을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교육제도 과거 50년의 음악교과교육 전반을 살피고 오늘의 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바르게 대처해야 하며, 나아가 미래에 대비하여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과거의 교육에 대해 반성적 시각을 가지며 미래 상황에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현장의 음악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음악교과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흥미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 수업과 활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수긍하지 않는다. 둘째, 학부모와 사회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음악 향유능력 부족과 음악에 대한 자녀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서 음악교과의 당위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감소되어 가는 음악수업시간 때문에 교과 위상에 대해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이 지녔던 음악교과의 이상과 교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음악지도 실제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면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다. 넷째,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 대부분은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해 음악의 기본감각을 갖추지 못하고, 3·4학년 어린이들도 기초기능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손이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년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음악교과교육 전반의 역량과 성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현재 중·고등학교의 음악과는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수업시간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교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음악과'가 일상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

에 음악 활동이나 학습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학교에서 배운 '음악과'가 성인이 된 후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악교육을 전에 받은 사람이나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의 '음악의 가치와 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음악교사들은 열심히 지도하고 있지만, 교육 여건과 지도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미흡한 부분들, 음악과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무관심, 사회 인식의 부족에 대한 불만감은 쌓여 가고, 거기에 교과의 정체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은 교육과정과 그 운영 시스템에 있으며, 음악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적합도 및 합리성과 그 성패 역시 음악교과의 체제와 구조의 완성도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현재의 음악과는 종적, 횡적 체제와 구조상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과'의 목적과 목표는 위로 학교 교육의 근본 및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로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에 세밀한 연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배당 수업시간이 감소되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지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예술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재량 활동 시간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음악과 설비 보유 기준이 흔들려 학교관리자들은 음악 활동 및 학습을 위한 시설과 악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과거 학교 음악교육 성과의 면에서 보거나 현재 음악교육의 실태와 그 시스템을 볼 때, 음악교과교육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음악교육을 왜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 음악교육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왜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0년 동안에는 어떤 목표 아래,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음악을 지도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거울삼아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음악교과교육'의

기본 시각을 밝히고, 최근까지 교육과정에서 음악과의 목적 및 목표의 설정과 교과내용의 선정 및 조직, 지도방법의 선택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 논의하면서 당면 문제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기초

1. 음악교과교육에 관한 시각

우리나라 교육법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이라 명시하고,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과’는 이러한 교육의 기본 체제와 교육목표 측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기본 교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교가 전인적 성장과 개성 지향, 창의적 능력, 교양과 덕성, 직업적 능력과 가치 발휘, 전통의 이해와 민주적 공동체에의 헌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홍익인간’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적성과 소질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교육을 正道와 基本과 合理에 충실하여 수행한다면 모든 교과는 각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음악교과도 제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전인적 인격, 교양과 덕성, 개성, 창의성, 전통 이해, 공동체 등의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들보다 더 강하게 ‘음악교과’의 당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음악’은 古代부터 오늘날까지 동서양 대부분 나라들의 교육에서 기본과목의 하나였다. 고대 신라의 화랑교육에 시와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고, “고려의 仙家 교육과 조선의 선비 교육에서, 그리고 중국의 儒家(백성 교화를 위

한 도덕적 음악론)와 道家(순수 정감에 호소하는 자율적 음악론) 교육”에서도 음악은 중히 여겨졌으며,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의 시민교육에서부터 근대의 공교육이 시작된 시기를 거쳐 오늘날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기본과목에 속했다. 그것은, 고금동서의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음악’의 인간교육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음악교과는 ‘학교 교육의 완성’을 위해 국가사회로부터 뚜렷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음악의 인간교육적 가치의 구현이 바로 그것이다. 음악교과가 그것을 구현하는 길은, 이제 오랜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음악과가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 올바른 지향점을 세우고 음악교육의 본질화, 한국화, 현대화를 실현해 가는 데에 있다.

2. 선행 연구 고찰

김종건의 논문 “교육의 준거와 교과 교육목적”은 ‘국어·영어·수학·음악’의 교육 관련 문헌에 서술된 교과교육 목적들을 R. Peters의 ‘규범적 준거’와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에 따라 분석하고 그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제6, 7차 음악과의 교과교육 목적에 대해 “충실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음악성의 계발’, ‘음악 미적 감수성의 계발’, ‘심미적 가능성의 확장’ 등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Peters의 준거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교과가 교과 특유의 모습만 강조할 경우에 교육의 근본 목적에서 동떨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에 의해 최근 수행된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실태와 문제,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태도, 정책지원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시사점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음악수업관찰과 교사·학생 면담, 설문조사, 국내외 문헌연구 등에서 얻어진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포괄적인 목표보다는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음악교사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지도할 능력을 충실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향후 음악교육의 발전적인 방향과 모습을 제시하

고 있다.

음악교육실태에 관한 연구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한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의 부속연구인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양적접근(자료집 1)’과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질적 접근(자료집 2)’,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자료집 3)’이 있다. 양적접근에 의한 연구는 전국 각계각층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과 요구를 조사한 것으로, 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교육과정의 활용도 및 적절성, 음악교육의 효율성, 음악교육에 대한 요구 등에 관한 다양한 설문을 통해 음악과의 목표와 내용 체계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음악교육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질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전국 초·중등학교의 일반적인 음악수업 현장을 관찰하고 교사와 학생을 면담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6,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와 지도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의 현장사례를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관리체제를 비롯하여 학교급별 목표 제시방식과 영역지도의 불균형 등에 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음악교과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근본과 교과로서의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그 밖의 다양한 ‘교육의 준거’들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음악교육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교육과정의 부적절한 교과목표 설정과 비효율적인 체제 및 내용구성에서 시작되었음을 발견하였다.

Ⅲ. ‘성격 및 목표’의 설정

차수별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과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일반 목표’, ‘교과 목표’, ‘목표’, ‘학년 목표’, ‘지도 목표’ 등의 이름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고, 제6, 7차 교육과정은 ‘목표’ 항 앞에 교과의 ‘성격’ 항을 두고 있

다. 이들 일곱 교육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교과목표 설정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50년 동안 교과목표는 시기에 따라 각각의 강조점을 가지는 한 편, 시기별 로 서로 다른 제시유형을 보이고 있다. 1~3차 시기에는 국가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여 '원만한 인격·교양·애국애족 정신' 등의 수반적 결과를 강조하였다. 제시형태를 보면, 학교급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한 개 항(1차)또는 네 항(2, 3차)의 일반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학교급별 목표와 학년별 지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차에서는 '일반목표'와 학교급별 '음악과의 목표(영역별 구분)', 학년별 '지도목표(영역별 구분)'로 구분 제시하였고, 2차에서는 '목표'와 '학년목표 및 지도목표'로, 3차에서는 '일반목표 및 목표'와 '학년목표'로 구분 제시하였다. 4, 5차 시기에는 음악과의 내재적 성격을 반영하여 포괄적 목표에서 '음악성·정서·창조성'을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완결 어휘로 사용하였다. 세부목표로는 음악 능력에 중점을 둔 세 항(4차) 또는 두 항(5차), 즉 '기본능력·표현능력·감상능력' 영역 또는 '표현·감상' 영역으로 제시하고, 다시 '교과목표'와 '학년목표'를 영역별로 구분 제시하였다. 6, 7차 시기에는 교과목표에서 예술교과로서의 성격을 중히 여겨 포괄적 목표 진술에 '조화로운 인격'이라는 수반적인 목표 어휘를 삭제하고 '다양한 악곡과 활동',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적 정서' 등을 포함하였다. 세부목표로는 역시 음악 능력에 중점을 둔 세 항(6차) 또는 두 항(7차), 즉 '이해·표현·감상' 영역 또는 '이해·활동' 영역으로 제시하고, 다시 '교과목표'와 '학년목표'를 영역별로 구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목표 제시에 앞서 그 목표의 배경이 되는 교과의 성격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모든 교육과정들의 음악교과 목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목표'라는 어휘 사용의 모호성과 그 밖의 항들의 용어 선택 및 진술 내용의 적합성 결여, 진술 형태 및 제시 여부의 일관성 부족 등에 있다. '목표' 항의 제목에서 '목적'과 '목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므로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용어를 합당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목적'은 '실현하고자

지향하는 것'으로, 목표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목표'는 '나아가 닿을 지표, 지점'으로, 목적보다 작고 구체적인 기준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성격'은 교과와 학문 내·외재적 가치와 개인적·사회적 의의, 교육 전체 속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요 규명이다.

교과교육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지만 목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목적'과 '목표'가 구별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어 왔고, '성격' 항이 등장한 후에는 세 용어가 엉켜 더 큰 혼돈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 지도목표의 구체적 진술에서도 '목적형' 문장, '목표형' 문장, '내용형' 문장, '목표와 내용 혼합형' 문장 등이 섞여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학교/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도달 지점이 모호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교과목표 진술들은 지난 50년 동안 음악교육자들과 일반 교육자들로 하여금 음악과에 대해 혼돈된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음악교과의 목표'는 '음악교과의 목적'으로부터 도출되고, '음악교과의 목적'은 '음악교과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며, '음악교과의 성격'은 '인간과 삶과 음악의 관계와 그 가치'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개인적, 사회적 삶 속에서 영위해야 할 음악 자체의 의의와 가치가 무엇(성격)이고, 학교 교육 전반의 궁극적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음악교과가 실현하고자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목적)이며, 음악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별, 학년별로 음악 지도를 통해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지점이 어디(목표)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고, 종적, 횡적 연계와 도달 수준 및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제시해야 한다. 교과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될 때 비로소 그에 합당한 지도내용이 선정될 수 있으며, 그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법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성격 및 목적' 제시 형태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는 음악과의 독자적 성질과 특유의 역할을 규명하고, 교과로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목적은 성격 항목에 포함시켜 제시하되, 음악과가 음악 지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지향하는 바, 결과

로서 이루어질 전반적 상태로 설정해야 하며, 학교 교육 전반의 궁극적 목적의 기본 틀 속에서 담당해야 할 '인간적·음악적·교육적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성격' 항목이 갖추어야 할 체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음악과 성격의 체제(예시)

○ 음악의 의의

의미 :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음향예술

가치 : 생활의 일부,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침 : 즐거움/정서적 만족감, 개인적/사회문화적 성숙, 조화로운 인간적 품성 함양(자아실현, 음악 미적 감수성/창의성 계발/발휘, 보편적 음악문화 공유->내면의 평화와 정신의 교양 이룸, 인간/삶 이해)

○ 음악교과의 성격

성격 : 악곡과 활동을 통한 음악 미적 경험 제공, 기본적/잠재적 음악 능력 확대, 음악적 정서/애호심 계발, 음악의 생활화 도모

중점 : 미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기, 기본감각/기초기능 기르기, 탐구하기/연마하기, 개성 있게 표현/수용하기

○ 음악교과의 목적

음악 미적 경험, 음악적 능력 향상, 음악적 심성 함양,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 생활

2. '목표' 제시 형태

'목표' 항목에는 음악과가 학습 지도를 통해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상태, 도달해야 할 지표/지점'을 제시해야 한다. 음악교과의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음악 경험 상태와 음악적 능력, 음악적 심성/태도' 등을 도달 지점 제시형(수준/범위)으로 기술해야 하고, '교과 목표'와 '학교/학년별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 때, '교과 목표'는 전 학년에서 같게 하고, '학교/학년별 목표'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제시해야 하며, 학년별 목표는 초1-2, 초3-6, 중1-3, 고1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 항목이 갖추어야 할 체제와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목표 및 학교/학년별 목표 체계(예시)

구 분		경험	능력	이해	태도	비고
교과 목표 (전체 학년 동일)		다양한 악곡/활동 미적 경험	음악 기본 능력, 창의적 표현/감상 능력		음악적 정서, 음악 애호심	기본감각, 기초기능, 개념이해
학 교 · 학 년 별 목 표	고 1	다양한 형식/양식의 악곡/활동 미적/구조적 경험	창의적 표현, 내용/맥락 해석 중심의 감상	음악 생성의 원리/과정 이해/활용	다양한 음악 문화 탐구, 진지한 참여	
	중 1-3	다양한 형식의 악곡/활동 미적 경험	창의적 표현, 배경/내용 이해 중심의 감상	다양한 용어/개념, 여러 악보 체제 이해/사용	활동에 적극 참여/즐김	
	초 3-6	기본 형식의 악곡/활동 미적 경험	기초 표현기능, 개성적 표현/감상	기본 용어/개념, 악보 기본체제 이해/사용	활동에 적극 참여	
	초 1-2	간단한 노래 부르기, 초보적인 악기 다루기, 단순한 악곡 듣기	음 감각, 기초 표현 기능, 음악의 느낌에 따른 몸 움직임 반응			

[교과 목표] (중심 어휘 예시)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의 미적 경험
음악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 애호심

[초등학교 1, 2학년 목표] (중심 어휘 예시)

- 1. 간단한 악곡을 노래, 초보적인 악기, 단순한 악곡
- 2. 기본 감각과 기초적인 표현 기능
- 3. 음악 느낌에 따른 몸 반응

[초등 3 - 고1 목표 예시 생략]

IV.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

각 차수의 교육과정은 음악교과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지도 내용', '내용', '학년 목표 및 내용', '학년별 내용' 등의 항목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고, 제6, 7차 교육과정은 '학년별 내용' 항 앞에 '내용체계' 항을 두고 있다. 이들 일곱 교육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지도내용 선정의 경향을 살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50년 동안 지도내용은 교육이론의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영역구조와 체제의 면에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을 보였고, 중점적으로 지도할 내용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왔다. 1~3차 시기에는 연속하여 대두된 '교수요목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관점에 따라 지도내용의 중점에 변화를 보였고, 세부내용도 정리, 보완되면서 체계화 되었다. 1차는 '독보중심의 음악기초기능과 악전'을 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술내용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지도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다만 교재악곡 노래 부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악과는 '노래 가르치는 교과'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2차는 음악행위(가창·기악·창작·감상)의 '경험'이 강조되고, 각 영역 활동을 통해 '기초기능과 악전'을 지도하고자 하였으며, 영역별로 지도해야 할 활동과 구체적인 학습요소를 나열하였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개념지도'와 '민요지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감상' 영역에서 전통악기에 대한 이해와 전통악곡의 감상이 다소 강화되었다. 3차는 내용구성 체제를 영역별로 '음악 미적 경험'과 '기본기능 체득', '표현기능 향상', '교재악곡의 범위' 등으로 구조화 하고 지도요소를 종적, 횡적으로 결합 조직하고 상세화 하여 제시하였다. 음악적 표현력의 증진과 함께 창의적인 사고능력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지도요소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고, 문화유산 계승의 차원에서 전통악곡의 감상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되었지만, '가창', '기악', '창작' 영역에서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4, 5차는 '포괄적 음악교육'의 영향으로 음악개념의 이해와 음악행위능력의 향상을 꾀하되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내용을 구성한 시기이다. 4차에서는

내용영역을 ‘기본능력·표현능력·감상능력’으로 구분하고, ‘기본능력’ 영역에서는 악곡구성요소를 이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표현능력’과 ‘감상능력’ 영역에서는 활동을 통해 행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본능력’ 영역에 구체적인 세부요소가 생략된 채 일부 요소만 제시되고, ‘표현능력’과 ‘감상능력’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활동이 피상적으로 진술되어 ‘개념적·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지도가 실제화 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하였다. 5차는 지도내용을 ‘표현’과 ‘감상’ 영역으로 구분하고 4차 ‘기본능력’ 영역의 개념요소를 ‘표현’ 및 ‘감상’ 영역의 문장 속에 포함시켜 진정한 ‘기본개념’ 형성과 통합적 학습 및 창조적 활동을 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본개념의 형성과 통합적 학습에 필요한 구체적인 음악의 구성요소 및 생성원리와 기초기능, 표현 및 감상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형성과 통합적 학습, 창의적 활동은 실제화 되지 못하였다.

6, 7차는 ‘구성주의’와 ‘절대표현주의’ 등의 영향으로 지도내용을 ‘이해·표현·감상’ 영역 또는 ‘이해·활동’ 영역으로 구분한 시기이다. 6차에서는 ‘개념형성’과 ‘통합적 학습’, ‘창의적 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음악 활동과 학습에서의 음악 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용영역을 셋으로 구분하여 ‘이해’ 영역에서는 지도해야 할 최소한의 음악구성요소를 제시하였고, ‘표현’ 영역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을 위한 다양한 표현활동을 제시하면서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감상’ 영역에서는 음악 미적 질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감상활동을 제시하였다. 6차에서 보인 내용상의 중요한 변화는 ‘개념중심’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지도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과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에도 전통음악의 지도요소를 구체화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음악 지도를 활성화 하고자 한 점 등이다. 7차는 ‘구성주의’와 ‘실천주의 음악교육 방법론’의 일부를 수용하고, 심미적 음악체험이라는 예술교과의 성격에 더하여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지도요소를 하나의 내용체계 안에 제시하였다. 내용영역을 둘로 구분하여 ‘이해’ 영역에는 음악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활동’ 영역에는 ‘가창·기악·창작·감상’의 지도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전통음악의 개념요소와 활동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차수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은 각각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강점과 약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특징으로는 '기능과 지식 요목화(1, 2차)', '지도요소의 상세화(3차)', '개념이해와 능력향상(4, 5차)', '심미적 경험과 개념이해, 창의적 활동(6, 7차)'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강점과 약점들은 서로 역방향으로 작용하였는데, 예컨대 '지도요소의 상세화'로 가르칠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강점이 되었지만, 그것은 지도내용과 경험 및 활동이 분리되거나 음악적 표현력의 증진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의 형성 등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게 하는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과의 기본 틀을 본질적·현대적 시각에서 재정비하고 그 틀 위에 지도내용을 새롭게 선정, 조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도내용은 경험해야 할 악곡과 활동, 그 경험의 질과 양상, 갖추어야 할 기본감각과 기초기능, 향상해야 할 능력, 형성해야 할 개념과 파악해야 할 원리, 내면화해야 할 가치와 갖추어야 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들을 타당하게 선정하고 횡적, 종적 연계 속에서 정교하게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제7차까지의 교육과정 지도내용을 본질적, 현대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경험의 종류와 질', '연습과 이해', '가치화' 등으로의 포괄적 범주화와 지도요소의 최소화, 제시내용 진술의 명료화 등을 통해 지도내용을 새롭게 선정,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도 예컨대 '기본감각을 갖추기 위한 소리(박·음높이·소리크기 등) 탐색(초 1, 2학년)', '악보읽기·악기주법 등의 기초기능, 기본개념(3, 4학년)', '개념 및 용어, 개성적인 표현 및 감상 방법(5, 6학년)', '창의적 표현 및 감상, 사회적 맥락 속의 음악(7, 8학년)', '감상, 창작, 음악의 일상화, 역사적 맥락 속의 음악(9, 10학년)' 등으로 특정 내용에 초점을 두고 축소 조정하면서 단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체계 아래 횡적, 종적 연계를 가진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예시)

□ 교수·학습 내용 체계의 틀(예시)

학년		초 1,2	3	4	5	6	중 1	2	3	고 1
활동영역/학습요소										
음악 표현하기	가창(노래 부르기)									
	기악(악기연주하기)									
	창작(음악 만들기)									
음악 감상하기										
주요 학습 요소(용어/개념)										

□ 교수·학습 내용 체계(예시)

구분		초 1, 2	3-6	중1	2,3	고1
음악 표현하기	가창 (노래 부르기)	- 간단한 노래 가사로 듣고 부르기 - 외어 부르기 - 제창, 독창하기 - 그림가락악보 보며 가사로 듣고 부르기 - 글자가락악보 보며 가사로 듣고 부르기	생략	- 다양한 형식의 노래 악보 보며 가사로 듣고 부르기 - 외어 부르기 - 부분3부합창하기 - 2부 합창 지휘하기 - 자연스런 발성으로 부르기 - 악곡 구조에 따라 알맞은 프레이징으 로 부르기 - 바/사장조 악보 적기 - 바/사장조, 라/마단조 가락 계이름으로 보고부르기/외어 부르기	생략	- 다양한 형식/양식의 노래 악보 보며 듣고 부르기 - 4부 합창, 4중창하기 - 4부 합창 지휘하기 -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 - 해석에 따라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하면서 부르기 - 배운 노래 가락 외어적기 - 여러 조의 가락 계이름으로 보고 부르기
	기악 (악기 연주 하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창작 (음악 만 들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초 1, 2	3-6	중1	2,3	고1
음악 감상하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주요 학습 요소 (용어/개념)	- 박, 규칙 박 - 길이, 긴/짧은/ 같은 길이의 소리 - 높이, 높은/낮 은/같은 높이 의 소리 - 크기, 큰/작은 소리 - 사람/타악기/ 가락악기의 소리	생략	- 여러 박자 - 여러 종류의 흐름결 - 곳거리, 변형 장단 - 가락의 구조, 음정 - 시김새의 역할 - 주선율/대선율 구성 /역할 - V7화음, 화성음/비 화성음 - 구조, 마침꼴, 엮음 구성 - 악곡의 통일성/다양 성, 가곡 형식, 성부 조직의 여러 형태 - 성악 연주형태 - 빠르기 변화 - 음색 변화 - 음색 간의 대비, 악기군 - 창법/주법에 따른 음질 차이	생략	- 혼합박자 - 다조음악/무조음악 - 화성진행, 결합음 이용 - 양식

V.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선택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2차부터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방법’, 또는 ‘교수·학습 방법’ 등의 항을 두어 음악지도에서 유의해야 하거나 교육과정 수행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들을 세 시기로 나누어 지도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제시 경향을 살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제1~3차에서는 ‘교수요목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으로 시기별 중점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도방법의 면에서도 기능 및 지식 일방적 전수와 행위 경험 중심의 지도, 구조적 요소 중심의 지도로 점차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도방법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못했고 단순히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3차까지 ‘평가’에 관한 지침은 되지 않았다. 1차에서는 지도방법을 목표 및 내용 속에 섞어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방법’에 관한 제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지도의 중점은 대체로 가창활동 위주의 기능적 교수방법을 통해 음악기초기능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데 두어졌다. 2, 3차에서는 ‘지도상의 유의점’ 항을 두어 음악지도에서 고려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음악적 감각’과 ‘독보능력’의 향상, ‘기능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에는 상세화를 거쳐 지도요소로 ‘지도내용’ 항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대부분 지도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기능과 지식의 전수’로 요약되는 초기의 이러한 교육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수동적,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악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머셀(James Mursell)의 지적처럼, 거의 가창 활동에 국한된 기능 및 이론 학습만으로는 당시에 제시된 목표의 극히 일부 밖에는 성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5차는 다양한 교육이론과 ‘포괄적 음악교육’의 영향으로 교과서의 내재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됨으로써 지도방법도 크게 변하고 평가에 관한 지침도 제시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음악 구조적 요소 개념과 원리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개념과 원리 중심의 학습은 음악활동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느끼고 이용하는 실제적인 경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인 수준에서 도입되어 개념과 활동을 주체적 경험으로 학습하는 상태로 조직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현대적 음악교육이론들이 유입되고, 포괄적 음악성의 함양, 창의성 함양, 다양한 매체활용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동향이 소개되면서 그러한 아이디어들로부터 효과적인 지도방법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6, 7차는 '구성주의'와 '심미적 음악교육'의 영향으로 지도방법에도 변화가 있었고, 각 학년의 지도내용 및 방법들 간의 횡적 연계와 학년별 내용 및 방법들 간의 종적 연계가 강조된 시기였다. 6차에서는 예술 심미적 성격과 '포괄적 음악교육' 방법을 강화하여 '개념형성'과 '통합적 학습', '창의적 활동'에 중점을 두되 음악 미적 정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7차에서는 6차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실천주의 음악교육방법론'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해석 및 표현, 느낌과 생각의 표현, 다양한 자료의 사용을 강조하였고, '평가'에서는 해석 및 표현력, 창의적 능력의 평가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과 도구의 활용을 요구하였다. 7차는 지도방법 개선의 면에서 적극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교사가 그것을 이해, 파악하여 교실에서 실천하는 데에 지침으로 이용할 만큼 구체적인 형태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시기에도 음악교육방법에 관한 연구와 국제교류, 교육과정 국제비교, ICT 활용의 확대, 전통음악교육론 정립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음악 지도방법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차를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에는 '지도상의 유의점' 또는 '방법'이 제시되고 4차부터는 '평가' 항목도 포함되었지만, 지도 내용에 관한 제시가 많았고 진술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사들이 음악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삼기에는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지도요소'를 제시했지만 그 범위와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각 영역의 통합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요소들을 통합해야 하고, 어떤 요소와 어떤 행위나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해야 하는지를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기능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일 자체는 쉽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기능이나 지식을 어떻게 음악 표현이나 감상으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개념적 접근'에 의한 학습지도나 '심미적 음악교육' 정신의 반영은 그 이론들에 대한 관념적 이해만으로는 교실에서 실제화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안내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학습과 활동의 지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도방법’ 및 ‘평가’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본질적, 현대적 시각에서 음악교과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음악교과교육의 목적 및 목표의 설정과 지도내용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도방법과 평가에 관한 지침도 그에 합당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과의 성격을 음악 예술적 질의 탐구와 미적 경험을 우선으로 하는 예술교과로 규명한다면 음향과 악곡을 탐구하고 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아울러 그러한 경험의 질과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와 경험이 행위와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음악 구성 요소의 개념을 형성하며 음악 표현 및 감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데까지 연결되도록 요구한다면, 각각의 범위와 수준에 따른 ‘지도요소와 원리, 방법을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그와 함께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7차까지의 교육과정 제정과 개정이 당시의 상황과 요구에 따랐고 그 이론과 정신, 채택한 방법이 아무리 옳고 의의 있는 것이라 해도 교육과정의 ‘지도 방법’과 ‘평가’ 항목에 구체적인 진술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과서 편찬과 교실 수업 및 평가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예시)

[* 음악과 교수·학습의 핵심은 학생들이 음악을 미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경험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악곡은 작곡자가 자신의 예술적 의미(의도)를 소리로 형상화한 것이고, 소리 형상은 그 의미에 부합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표현 및 감상 활동에서는 악곡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 음악과 교수·학습에서는 항상 악곡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모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하므로 음 감각을 기르고, 악보 읽기 및 쓰기, 악기의 기본 주법 등의 기초 기능을 갖추게 하며,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기능을 연마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음악과 교수·학습에서는 악곡을 표현하고 감상하는 활동 속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악곡을 형성하고 어떻게 소리로 전환, 표현되는지를 탐색, 탐구함으로써 음악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학년별로 특히 유의하여 지도해야 할 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시 생략)

‘평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업성취도의 측정과 평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예시)

[구체적인 평가 계획은 각 학교의 평가 지침과 일정에 따라 수립하되, 평가 내용은 학년별 ‘교수·학습 내용’을 준용하여 선정하고, 평가할 학습 내용과 목표 성취도는 학생들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지도한 범위와 수준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교수·학습 내용 체계’를 근거로 마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 및 방법으로 시행한다.]

□ 평가의 내용 및 방법(예시)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점 비중(%)	
음악 표현 하기	가창 (노래 부르기)	- 노래 부르기 능력 - 기능 습득/향상 - 태도	실기, 관찰	()	50
	기악 (악기 연주하기)	- 악기연주 능력 - 기능 습득/향상 - 태도	실기, 관찰	()	
	창작 (음악 만들기)	- 음악 만들기 능력 - 기능 습득/향상 - 태도	실기, 관찰, 수행자료모음 검사	()	
음악 감상하기		- 악곡 감상 능력 - 태도	감상, 관찰, 수행자료모음 검사	30	
주요 학습 요소		- 음악용어 및 개념이해	지필평가 (실음/악곡통한 평가)	20	

[* ‘음악 표현하기’ 영역의 평가는 학생이 음악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도를 얼마나 잘 높고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표현 기능이 얼마나 습득 또는 향상되었는지, 태도는 어떠한지를 측정, 평가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생이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 보이는 각 활동의 수준과 질, 학습한 기능의 습득/향상의 정도와 악보 사용 능력, 태도 등을 관찰,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이하 예시 생략)

VI. 맺는말

본 연구는 과거 50년 동안 음악교과가 교과교육의 성격과 목적 및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고 교과 내용을 어떻게 선정 및 조직했으며 지도방법을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를 증점적으로 살펴 논의하면서 당면 문제를 밝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음악교과가 학교 교육의 완성을 위해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은 ‘음악의 인간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구현하는 길은 음악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올바른 지향점을 세우고 음악교육의 본질화, 한국화, 현대화를 실현해 가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 정도에 비추어 타당한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음악의 기본 및 원리와 학생 발달의 자연성에 합당한 지도 내용을 선정하며, 교과 성격 및 학습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지도 방법을 선택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이 ‘正道와 基本과 合理의 정신’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음악교과는 다양한 음악 경험(악곡과 활동)을 제공하되, 다만 ‘수동적, 기계적으로 行(재생)하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함으로써 악곡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공감하고 공명하는 가운데 능동적, 자주적, 창의적으로 음악을 하도록 도우며, 그 값진 경험을 위해 연습하고 음악의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교과는 마침내 음악을 美的으로 경험하게 하려는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세련된 음악적 느낌과 통찰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전제는 우리가 먼저 음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추고 바른 시각으로 음악교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음악예술의 원천과 지향점이 지고지선에 있고 그 교육의 본질과 근간은 의의 있는 예술적 함의와 음악 미적 질을 완성적으로 경험하는 데에 있으며, 인간이 갖는 최상의 경험은 자아와 대상과 사건세계 사이의 상호침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미가 바른 방향으로 구성되고 또한 미적 질을 띠게 될 때 완성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음악예술 경험은 사유를 통한 음악적 의미의 포착과 미적 인식 또는 음악 예술적 창조 행위의 주체적 이룸이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음악예술은 인간의 일상에서 얻어진 실마리로부터 창출되고 그를 근거로 수용되면서 완성적 음악 경험에까지 이르고 종래에는 현실로 돌아가 개인적, 사회적 삶과 경험의 완전성에 기여하게 될 때 의의 있는 음악 활동과 학습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법전편찬회 편, 교육법전 : 교육기본법, 서울 : 교학사, 2004, p. 1가
1-02-9.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기준 : 총론,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
사, 1999.
- 교육인적자원부, 음악과 교육과정 기준, 서울 : 신일문화사, 2001.
- 김종건, “교육’의 준거와 교과’의 교육목적”, 교육과정학연구 제3권, 한국 교
원대학교 교육과정연구소, 제3권, 2003. p. 1~2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체제연구(I), (II)서울 : 신성인
쇄상사, 20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초·중등학교 음악교육실태에 대한 질적접근, 서울 :
신성인쇄상사, 20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초·중등학교 음악교육실태에 대한 양적접근, 서울 :
신성인쇄상사, 2001.
- 한홍섭, 중국 道家의 음악 사상, 서울 : 서광사, 1997. p. 5~6.
- James Mursell, 음악교육과 인간 형성,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P. 25

ABSTRACT

The Investigation of an Improved National Music Curriculum

Lee, Hong-soo

The national curriculum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in Korea, which holds a very strong centralized educational system, in that it functions as a backbone of unit local school systems. The national curriculum, in a sense, is valued-oriented because it reflects the perspectives of the persons on education and music, who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Korean national music curriculum consists of five parts: characteristics, goals, contents, teaching · learning strategies, and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spectives on music curricular and to suggest alternative curriculum, which was intended to reflect more educationally valid stands.

Key Words: national music curriculum, perspectives on music curriculum,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